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 분석 - 기독교 상담 관점의 질적 사례연구*

Analysis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Grandmother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 A Qualitative Cas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박안나(Anna Park)**

김준 (Jun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grandmother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The stress-coping-adaptation theory was applied to the process, a theoretical propositions was developed and qualitative data from 10 cases were analyzed through Yin's methodology. Each case was analyzed by pattern matching chronologically and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stress environment was determined by relational factors and religious support was the most prominent coping. The four types derived from the cross-case synthesis : the religious support type, the adult-child sacrifice type, the public support failure, coping resource weakness type. All types are related with religious support. In addition,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grandmothers was analyzed as shock and confusion stage → intermediate stage → social support stage → adaptation. The intermediate stage has grandmothers' critical choice and it'd change the result of adaptation. According to this, the relationship with adult-children was emphasized in counseling for the grandmothers, and the conceptualization of counseling cases and related intervention procedures were discussed. This study structurally analyzes the adaptation process of grandparent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provides data of each type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1일 최종수정, 3월 4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총신대학교 박안나의 박사학위논문(2021년 2월, 지도교수:김준)을 요약 및 재구성한 논문임

** 헤세드 상담센터(Hessed Counseling Center) 실장,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annapark236@gmail.com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교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촌로 110, junkim24@gmail.

and stage for case conceptualization and a series of intervention procedures. It provided implications for religious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the welfare of them.

Key words: grandparent-headed families, adaptation, social support, Christian counseling, Yin's case methodology

I. 서론

조손가족은 조부모세대와 손자녀 세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우리사회에는 1990년대 IMF 이후 그 수가 급증하였고 이 후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 2030년에는 약 27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 2019). 조손가족은 양적 증가 면에서 2000년대 이후 가장 특징적인 가족형태의 변화로 손꼽히며 이미 우리사회에 하나의 가족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대안이 되는 가정’이라는 인식도 생겨 조손가족 연구의 주제는 ‘조손가족이 하나의 가정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김미영, 윤혜미, 2015 ; 신명주, 2019 ; 박선희·조계표, 2019).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조손가족마다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 문제 등을 포함하는 사례관리를 일관되게 강조해왔고, 실제적인 사례관리의 일환으로 심리상담적 개입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상담 또는 가족치료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 본 연구도 ‘조손가족이 하나의 가족으로 온전히 기능하고 유지되기 위한 상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이지영·이혜원, 2011 ; 윤혜미·장혜진, 2012). 한 개인 뿐 아니라 가족도 변화의 시기를 겪거나 새로운 형태가 되면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가족상담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기반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은 조손가족의 형성과 그 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손가족의 적응 연구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한 데 반해 조부모 대상 연구는 ‘손자녀 양육’이라는 주제에 한정된 양적 연구 경향이 뚜렷해 조부모의 적응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조손가족은 경제적 자활 능력이 없는 세대만으로 구성되는데 가장인 조부모가 노화, 생계유지, 손자녀 양육이라는 삼중고 속에 처해 있어 자력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워 반드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상담 개입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독교상담은 그 정체성 확립과 구체적 기법의 개발을 위해 발전해가고 있지만 학자마다 그 정의가 달라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장동진·김용태, 2013 ; 안경승, 2023). 본 연구에서 기독교 상담이란 상담자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과 문제를 이해해 내담자를 돕는 상담이라는 폭넓은 정의를 사용하며 기독교적 관점이란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이므로 결국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적 신관,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진 상담자가 기독 자원-성경, 신앙, 기도, 공동체, 용서, 기독교인, 고백, 죄, 은혜-을 활용해 내담자를 돕는 상담 활동으로 볼

수 있다(이관직, 2007 ; 김준, 2015 ; 김준, 2021, 안경승, 2023).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위기의 가정의 회복을 돕는 사명과 그 전문적 역할에 대한 과제가 있기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신앙적 영역 모두 위기인 취약한 조손가족에게 돌봄과 전문상담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강경미,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조손가족 조부모가 겪는 적응의 과정을 분석하여 조손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 개입에 대해 제안하고 결과에 대한 함의를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 형성 후 조부모의 적응 과정을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살펴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기독교 가족상담 개입을 제안하는 것이며 연구 문제는 ‘조손가족 형성 후 조부모는 어떠한 적응 과정을 경험하는가?’ 이다. 이를 위해 조손가족과 적응, 사회적 지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10명의 조손가족 조모 사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하되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본 연구문제에 가장 적합한 Yin의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와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조손가족의 이해

조손가족의 정의는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내 조손가족에 대한 특례조항이 포함되면서 이 법에서 명시한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손가족 형성의 주요인은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며 이혼률의 증가는 앞으로도 조손가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박안나, 2021 ; 정순돌 외, 2024).

조손가족의 특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 된다.

첫째, 조손가족은 빈곤하고 경제적 자활 능력이 없어 빈곤에서의 탈출이 어렵다.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인 ‘부모세대의 부재 이면에는 ‘빈곤’이라는 결정적 배경이 있으며 조손가족 형성 후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다(민기채, 2010 ; 김승희, 2016). 조손가족 조부모의 평균소득액은 독거노인가구보다도 낮아 우리 사회 최빈곤층이며, 조손 모두 경제적 자활 능력이 없고 정책적 지원은 한계가 있어 빈곤에서의 탈출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민기채 2011). 조부모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82.3%으로 낮은 학력과 빈곤의 악순환은 우리나라 조손가족의 전형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손가족은 가족 구성원인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생애주기에 어긋나는 ‘위기’에 있어 심리적 자활 능력이 떨어진다(박윤미·전수경, 2014).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노년기에 예상치 못한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게 되며, 손자녀는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가족해체를 경험한 후 부모의 부재로 인해 성인역할을 하거나 조기성숙의 압력을 받은 애어른의 역할을 하게 된다(김송이·김동일, 2020). 이와 같은 생애주기의 이탈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많은 연구들은 이들의 우울과 자존감 손상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윤정, 2014 ; 장영은, 2016).

셋째, 조손가족은 한번 형성되면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조손가족 조부모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93.0%가 손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반면 친부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살 가능성에 관한 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의향이 없었다. 조부모, 부모, 손자녀 모두 사실상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으로 2014년, 2015년에 보고된 연구에서도 손자녀의 평균 양육기간이 1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미진, 정혜정, 2014 ; 김명희·김신희, 2015). 또한 우리 사회의 혈연 중심의 문화도 영향을 미치는데 뿌리 깊은 혈연 중심의 가치관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역경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기도 하다(윤주영·고보선, 2017 ; 이영애·방은령, 2018).

2.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

(1) 적응과 스트레스 이론

적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를 고려해야 하는데, Lazarus와 Folkman(1991)은 변화하는 환경을 스트레스(stress)로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대처(coping) 개념으로 하는 분석적 틀을 제공했다. 또한 스트레스나 대처, 적응을 판단하는 것은 모두 각 ‘개인의 주관’이라고 밝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느끼는 것, 적응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달렸다는 개념이 일반화되는데 기여했다. 이 이론은 이 후 스트레스의 연구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준거틀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도 적응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 이론에서 제시한 척도를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을 스트레스에 압도되는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평가와 노력, 선택 등 능동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스트레스와 적응의 이해에 대하여 사실적이고도 치료적인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이현주, 2012).

배경과 환경이 모두 다른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Lazarus와 Folkman(1991)의 이론은 유용하며, 이 이론에서 정립한 개념에 따라 적응 또는 적응 과정을 ‘개인과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 때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사회관계적,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요소 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를 살펴 보아야 한다.

(2) 조손가족 조부모의 환경

① 사회·관계적 환경: 손자녀 및 성인자녀와의 관계

조손가족 조부모 스트레스의 사회·관계적 환경의 주제는 가족 구성원인 손자녀가 단연 대표적으로 그동안 수행된 조손가족 조부모에 대한 연구는 손자녀 양육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 조손가족 조부모는 손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의지와는 무관하게 양육방법이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한편 빈곤으로 손자녀 학습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안타까워한다(이영애·방은령, 2018 ; 김은정·하문정, 2023). 그러나 조부모는 이런 마음을 손자녀에게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잔소리나 격앙된 감정을 쏟아 놓는 훈육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된다.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손자녀와 의견이 다를수록, 손자녀가 조부모를 무시할수록, 손자녀를 다루는 게 어려울수록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커지며 손자녀의 사춘기 시기에는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김승희, 2016).

다음으로 조손가족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성인자녀, 즉 손자녀의 부모와의 관계이다. 손자녀가 같은 주거 환경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실재하는 관계적 환경이라면 성인자녀는 조손가족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실제적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조부모의 내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부모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성인자녀의 이혼이나 가출, 실종, 질병 또는 사망 등과 같은 불행이 있으며 자녀의 불행은 조부모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고 자녀의 가족해체로 인해 손자녀를 맡게 된 조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자신이 자식을 잘 못 키웠다는 자책과 회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조손가족을 형성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조부모의 심리적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애증과 원망, 분노의 대상이자 막연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의 원천이 된다(박안나, 2020).

Sands와 Goldberg-Glen은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이 두 관계, 즉 조부모와 성인자녀,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가 조부모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스트레스라는 점을 밝혀 이 주제에 대한 상담적 개입과 사회적 지지를 주장했다(2000).

② 경제적환경 : 생계유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곤은 조손가족 형성의 주요한 원인인 동시에 조손가족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조손가족의 주요 소득원천은 공공부조이며 그만큼 그들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2010)가 조사한 전국 조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족의 약 3분의 2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조손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직업은 단순노무직과 기타가 약 60%였으며 친부가 손자녀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는 13.3%에 불과하였고, 친모의 경우는 더욱 적었다.

손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나 교육비 등은 늘어나게 되나 조부모는 더욱 고령이 되어가기 때문에 결국 공공부조 급여 같은 공적 지지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양육비 지급액은 월 5만원, 기초노령연금제는 1인당 20,000~90,000원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으려면 조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은 65세 이상이고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가능해 성인자녀가 생존해 있으나 자녀양육을 조부모에게 미루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조손가구는 법률상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윤혜미·장혜진, 2012).

③ 신체적환경 : 노화와 건강

일차적으로 양육을 책임지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커 건강의 위험이 높는데, 김명희와 김신희(2015)가 조손가족 조모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 모두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평균 만성질환의 수는 2.46개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손가족 조부모는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 생활을 반복하며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며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악화도 경험하게 된다(송유미·이선자, 2011). 김예성, 인훈, 박채희(2014)는 조손가족 조부모와 일반 조부모의 건강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조사 대상 조손가족 조부모는 일반 조부모 보다 평균 연령이 6년 가량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신체적 건강수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일반노인들에 비하여 떨어져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 건강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의식은 높지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손자녀 양육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손자녀를 우선으로 여겨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원조요청을 가능한 한 미루거나 참고 견디면서 심각성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3) 조손가족 조부모의 심리 : 우울감 및 낙인감

손자녀 양육의 부담과 고통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손가족 조부모는 우울의 ‘숨은 환자’이며, 조손가족 조모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 평균 점수가 9.08로 대상자의 88%

가 우울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신희·김명희, 2015).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우울점수가 5.3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삶에서 우울은 비단 손자녀 양육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조손가족 형성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오래 전인 조부모 자신이 어려서부터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가난했던 삶과 성인자녀의 불행은 조손가족 조부모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분노나 슬픔,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해 그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 경험을 하는 위기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문제를 내재화하거나 내부귀인하려는 노인들의 특성에 따라 자신이 자식을 잘 못 키웠다는 자책과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된다(양경순·한재희, 2013 ; 김세영, 2015). 또한 경제적 궁핍과 건강치 못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걱정, 손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 부모의 역할을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 본인 사후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며 도움을 청할 사람들의 부족할 때의 걱정과 불안 또한 우울감의 원인이 된다(김미영·윤혜미, 2015 ; 김혜진·김효정, 2018).

낙인감은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우울을 낮추는 요인으로서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들은 온전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우울을 호소하거나(김승희, 2016), 자신의 가족이 온전하지 않은 가정, 즉 정상적인 가족에는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손자녀를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고 기죽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안유숙, 2016) 등을 보고하고 있다. 조손가족 조모들은 스스로 ‘남들과 다른 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스스로 사회적 관계망을 단절하는 경향이 있으며,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조부모들은 ‘부모가 없어서 어떡하다’라는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여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조심시키거나 엄격하게 혼을 내는 등 자신의 가족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를 과도하게 의식한다는 보고가 있다(김명희·김신희, 2015).

3.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대인관계를 통해서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도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다(Cohen & Hoberman, 1983).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공적(公的) 사회적 지지와 사적(私的)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공적사회적지지

조손가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사회적 지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생활수준에 따라 제1계층, 제2계층, 제3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제1계층은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아동학습 수당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제2계층은 손자녀만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이며 제3계층은 제1계층과 제2계층에 해당하지 않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조손가족 조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살아 있음에도 자녀를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제도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너무 적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시에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이명용·김승희, 2014). 둘째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제도로,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면서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월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셋째,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 규정된 조손가족을 특례조항이 있어 자녀가 이혼하거나 실직 등으로 장기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조손가족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으로 조손가족수당이 있으나 다른 급여지원을 받지 않는 조손가족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에 논란이 있다. 최근 2020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0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에서 조손가족에게 해당하는 공적 사회적 지지가 있는데 아동양육비, 가족역량강화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이 그것이다.

(2) 사적 사회적지지

조손가족 조부모가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사회적 지지는 주로 공적 사회적 지지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나 대체로 성인자녀나 손자녀, 친인척 등이다. 이정화와 최원규(2012)는 사적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지지는 아동의 고모, 삼촌과 같은 성인자녀들로부터의 지원을 비롯한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는 그 외의 친척이나 이웃 지지망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연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조사한 사회적 지지 중 손자녀 부모인 성인자녀의 지지만이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강미희(2011)의 연구에서도 조손가족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접촉 빈도에 주목하였는데 연구 대상인 조부모들 가운데 일주일에 1번 이상 성인자녀와 연락한다고 답한 가구는 7.8%에 머물렀다.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조손가족 조부모들과 손자녀들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중요하나 접촉 빈도가 작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워 사적 사회적 지지에서 손자녀의 부모인 성인자녀의 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조손가족의 형성 원인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강미희, 2011).

한편 손자녀와의 관계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해소와 극복에도

움이 되는 대표적인 변수로 중요한 사적 지지이다. 손자녀와의 관계는 조부모를 더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덜 우울하게도 하는 중요한 변수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밀감은 조부모의 정신 건강과 손자녀의 행동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윤혜미·장혜진, 2012 ; 김미영·윤혜미, 2015). 또한 손자녀와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조모의 자아수용이 높고 심리적 행복감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이지영, 이혜원, 2011). Tompkins(2007)은 조손가족 조부모들을 위한 지원은 가족 구성원의 가용성과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되 손자녀 세대 또한 조부모 돌봄을 할 수 있는 세대임을 강조하며 손자녀의 능력이 적절한지 평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II. 연구방법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 과정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사례가 특정한 상황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술하는 질적 사례연구로 수행한다(이정빈, 2018). 질적 사례연구는 인식론 측면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절하므로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간으로서 조손가족 조부모가 적응 과정을 통해 겪는 경험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적응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김영환, 2006 ; 박안나, 2022).

2. 연구 설계 및 절차

(1) Yin의 질적사례 연구

Yin의 사례연구방법론은 개인의 생애 주기와 같은 현실세계의 사건인 ‘사례’의 전체적이고 의미 있는 특징들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하며 현상과 관련된 주요 정황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으로 조손가족 형성 후 조부모의 적응과 관련된 정황 조건들을 이해하고 그 역동적 과정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Yin(2016)의 사례연구방법론은 사건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빈도를 조사하는 통계적 일반화(statistical generalization)가 아니라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론을 일반화하는 분석적 일반화(analytic generalization)를 목적으로 하기에 복수의 조손가족 사례를 분석한 다중사례 수행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과정의 분석적 일반화라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특히 Yin은 통계적 연구와 보완적 관계가 되는 사례연구가 되기 위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는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을 기본으로 환경과 대처 요소들을 분석해 분석적

일반화가 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이는 실제 가족 상담에 전략을 제공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조건의 사례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Yin의 사례연구 분류 중 다중 사례-다중분석단위를 질적으로 접근한다(Yin, 2016).

(2) 사례의 경계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사례란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을 말한다. Yin(2016)은 공간적, 시간적 요소 등에 의한 경계를 분명히 한, 실생활에 존재하는 현상인 사례가 사례연구방법에 적합하다고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의 사례의 구체적 경계는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인 조모로 설정하였다. 조모로 설정한 근거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손가족에서 손자녀의 양육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 82.7%를 차지하며 이들의 유배우자율이 9.2%에 불과해 조손가족 대부분이 조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한조부모 가족이라는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두었다(여성가족부, 2010 ; 김명희, 2015). 더불어 성인자녀가 동거하지 않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조손가족 조모라는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된 사례의 경계를 반영한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 조손가족 형성 후 조모는 어떠한 적응 과정을 경험하는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하위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손가족 조모의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 ② 조손가족 조모의 대처로서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가
- ③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은 어떠한가

(3) 연구 명제 및 분석 단위

Yin의 사례연구방법론의 특징은 다양한 자료원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수렴시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Yin은 자료 분석 전략으로 ‘이론적 명제’와 ‘분석 단위’를 기반으로 할 것을 강조한다(2016). 사례연구에서 연구 명제와 이를 이루는 분석 단위는 분석적 일반화가 되도록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제와 분석 단위가 있는 연구일수록 보다 실현가능한 상태가 되며 Yin은 연구 초기인 설계단계에서 먼저 이론적 명제와 분석 단위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2016). 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의 연구 명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명제 :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은 조모의 스트레스 환경(관계, 경제, 신체적 환경)과 심리적 상황(우울과 낙인감)이 존재하며, 스트레스 대처는 사회적 지지(공적지지, 사적지지)를 통해 이루어져 이에 따라 적응 과정이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명제를 상정하고 수집된 사례들을 통해 실재를 분석하고자 하며, 사례의 ‘분석 단위’는 연구 문제, 이론적 배경, 연구 명제로부터 도출된 다음 항목이다.

- ① 조모의 스트레스 환경(관계적, 경제적, 신체적 요소)과 심리적 상황
- ② 조모의 대처 및 사회적 지지 - 공적지지와 사적지지
- ③ 조모의 적응

(4) 자료 원천 및 자료 수집 방법

Yin은 다양한 대상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소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2016). 본 연구는 심층면담, 직접관찰 및 참여관찰, 문서/기록정보 및 물리적 인공물을 자료원으로 삼았다.

표 1. 자료 원천 및 자료 수집 방법

참여자	연령	면담 횟수	심층면담장소	직접관찰 및 참여관찰	기록물 및 인공물
1	80세	2	연구참여자 집	손자 방에 있던 손자와 인사 손자 방 책장 관찰	성경필사본
2	80세	2	연구참여자의 교회와 집	교회 목사님의 조손가족 사역 및 손자의 생활 관찰	교회에서 준 반찬 및 빵, 가족사진
3	90세	1	소개자의 집	-	-
4	78세	2	연구참여자 집	손녀방 관찰 손녀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태도 관찰	가족사진
5	71세	2	복지관	-	손자가 받은 상장들
6	76세	2	연구참여자 집	성인자녀의 방문 관찰	가족사진, 휴대폰 사진
7	80세	2	연구참여자 집	이삿날 연구참여자자와 성인자녀의 관계 관찰	가족사진, 수첩, 상장들, 병원기록, 손녀촬영 비디오
8	80세	1	참여자7의 집	-	-
9	73세	1	참여자 집근처	-	휴대폰 사진
10	70세	2	연구참여자의 교회	-	휴대폰 메시지, 휴대폰 사진

(5) 연구참여자

연구자의 이해와 통찰이라는 목적이 있는(purposeful), 의도적(purposive) 표집을 기본으로, 다

양한 변이를 기록하고 중요한 공통적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최대변량표집(maximum variation)으로 하여 지역종합복지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즉 내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여 총 5명의 연구 참여자를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10명이 손자녀를 맡게 된 이유와 손자녀 양육 기간 등은 다음 표2에 정리하였다.

표 2.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참여자	연령	조손가족형성당시		조손가족형성사유	양육기간	종교	현재 동거인
		조모연령	손자녀연령				
1	80세	75세	친손자: 14세	장남 이혼	5년	천주교	손자
2	78세	69세	친손자: 10세 친손자: 12세	며느리정신이상	9년	기독교	손자들
3	90세	75세	친손녀: 6세 친손자: 5세	며느리 가출	16년	기독교	성인자녀들 손주들
4	78세	58세	외손녀: 5개월	외동딸 이혼	20년	기독교	손녀
5	70세	51세	친손자: 8개월	외아들 이혼	20년	기독교	손자
6	76세	54세	친손녀: 8세	며느리 가출 장남 사망	22년	기독교	성인자녀
7	79세	55세	친손녀: 1세 친손녀: 2세	며느리 가출	25년	무교	성인자녀들 손녀들
8	79세	60세	친손녀: 8세 친손자: 6세	며느리 가출	20년	기독교	성인자녀 손주들
9	72세	52세	친손자: 4세 친손녀: 2세	장남 이혼/가출	21년	기독교	남편 손자
10	70세	59세	친손녀: 1세	장남 이혼	11년	기독교	손녀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틀은 질적 연구의 양적, 과학적 측면을 강조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구조와 Yin이 다중사례 분석방법으로 제안한 ‘반복 논리(logic of replication)를 통한 패턴(pattern)의 활용’을 기본으로 하였다(Wolcott, 1994 ; 조용환, 1999 ; Yin, 2013). Yin은 연구자라는 분석도구가 자료에서 반복되는 논리를 찾아 자료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개념과 범주 및 의미와 주제 기술을 이끌어내는 분석 방법을 제안했는데 본 연구는 Yin이 제안한 설명하기(Explanation Building), 연대기적 분석(Chronological Sequences),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 사례통합(Cross-Case Synthesis) 기법을 사용하였고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단계에서 주제화 코딩과 패턴 코딩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부터 분석까지 일관되게 Yin의 방법론을 충실하게 따랐는데 이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판단과 함께, 분석 과정에서 다른 질적 분석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각 연구방법 개발자가 강조한 논리와 흐름이 짜깁기가 되어 연구 설계와 결과가 맥락적으로 불일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차지영, 2014).

표 3. 연구의 분석 구조 및 단계별 분석 방법

분석구조	Yin의 분석방법
기술 (Description)	1) 설명하기(Explanation Building) 후 주제화 코딩 (Themeing the data) 2) 연대기적 분석(Chronological Sequences)
분석 (Analysis)	1) 스트레스 :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 2) 대처 :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
해석 (Interpretation)	1) 적응 유형 : 사례통합분석 (Case-Cross Synthesis) 2) 적응 단계 : 패턴 코딩 (Pattern Coding)

(7)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에서 연구 설계 검증을 위해 제시되는 개념인 신뢰성, 진실성, 확실성, 자료 의존성은 Yin(2016)의 사례연구에서 구성 타당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신뢰성으로 검증된다. 먼저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위해서 본 연구는 면담은 물론 연구 참여자의 가정 방문을 통한 관찰,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기록물 및 인공물 뿐 아니라 면담시 사용한 자료와 현장 노트, 언론 기사 등 다양한 자료원을 사용하고 분석 단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위해서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인과 관계를 밝히는 기법을 활용하고,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를 위해서 ‘반복연구(replication)’ 논리로 분석적 일반화를 꾀했다. 반복연구는 복수의 실험을 행하는 개념으로, 처음 실험에서 중요한 결과를 발견하였다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을 하면서 연구의 결과가 보다 공고해지는 원리이다(Yin, 2016). 본 연구에서는 단순반복연구로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지 보고자 10개의 사례를 10개의 실험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분석하여 사례간 비교를 시도했다. 동일한 연구를 반복했을 때 같은 결과가 제시되는가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을 위해서는 자료수집 단계에서 사례연구 프로토콜을 사용했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밀 보장 및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

및 철회 가능, 자료 파기 등을 상세히 고지하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수집한 자료는 법에 따라 연구 종결 후 녹음파일은 삭제하고 인쇄물과 관련 메모 등은 파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

(1) 설명하기 및 주제화 코딩

사례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조모의 적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석 단위’ 중심으로 기술하는 ‘설명하기’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주제를 하나의 주제문 형태로 코드를 부여하는 ‘주제화 코딩’으로 다음과 같이 64개의 주제문이 도출하였다.

표 4. 주제화 코딩을 통해 도출한 64개의 주제문

사례 1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손자와 갈등이 이어짐
	조손의 상호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짐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생기고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짐
	성당 신부님에게 도움을 청해 손자가 성당에서 상담을 받게 됨
	성당 사람들의 관심으로 손자가 성당활동에 참여하게 됨
	성경필사와 친구들의 지지로 마음을 잡아감
	성경필사와 성당의지지, 손자의 변화된 모습에 자존감을 회복함
사례 2	뇌수술을 받았음에도 우울증에 걸린 차남 머느리를 대신하여 두 손자를 돌보기로 결심
	장남의 지지로 근근이 손자 돌봄을 이어감.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거가 열악하여 늘 궁핍한 생활을 이어감
	가사로 인해 무릎의 통증 등 육체가 허약해 짐
	손자를 키우면서 과거 삶에 대한 회한이 발생함.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고 목사의 지지로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음
	머느리의 반항으로 우울했으나 철이 든 손자가 위로로 건디는 힘이 됨
사례 3	친아버지보다 더 자상한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손자들이 잘 자라며 성숙해짐
	남편의 유산은 장남의 빚 변제로 소요되고 궁핍함 속에서 두 손자녀를 양육하게 됨
	거주지를 제공하고 아빠 노릇을 자처한 차남의 희생으로 어려움을 이겨감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체질이 가장 귀중한 돌봄 자산
	어린이집 원비를 배려해주는 목사 사모지지로 신앙을 갖게 되어 삶을 버티는 힘이 됨.
	통장의 복지관 자원 연계와 이웃들의 세심하고 배려있는 지지로 다양한 후원을 받음
아내를 찾으러 갔던 장남이 돌아와 장남을 의지하며 안정감을 갖게 됨	

사례 4	미혼모인 딸이 낳은 손녀를 입양 보낼 수 없어 자신이 양육하기로 함
	생계가 힘들어 손녀의 출생신고와 학교입학이 모두 1년씩 미루어짐
	친모의 새가정 소식을 듣고 손녀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며 학교를 그만둠
	SH공사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주거안정은 갖추게 됨
	청년수당에 의지하여 미래에 대한 기약 없이 살아가는 손녀에 대한 실망과 낙담
	자궁암 수술, 당뇨 등 지병이 있지만 의료보호에만 의지하고 큰 병원에 가지 않음
	교인이나 교회 사람들에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로서 삶을 이어감
	남편이 죽은 후 계자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짐
	친딸이 이혼하고 손녀가 함께 사는 것을 반대하면서 우울감이 깊어짐
사례 5	아들의 이혼 후 8개월 된 손자를 맡은 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둠
	지인이 준 정보로 수급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음
	가세를 기울게 한 아들로 인해 화가 나나 손자가 아들같이 여겨 의지할 수 있음
	손자가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상을 많이 타고 학비도 거의 들지 않음
	교회 봉사하며 재정적, 정서적 지지를 받아 손자와 조모 모두 심리적으로 안정됨
	잘 아프지 않은 건강한 체질로 손자를 키우면서 거의 아프지 않음
사례 6	치매 시아버지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며느리의 가출로 6살 된 손녀를 맡음
	성인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갈등을 겪으며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음
	남편이 사고로 죽은 후 얼마 후 간경화였던 장남도 사망해 우울증과 무망감이 생김
	손녀를 키우면서 술을 마시는 손녀 및 성인자녀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음
	골절사고까지 나 힘든 상황에서도 폐휴지를 주워 근근이 삶을 이어감
사례 7	고부간의 갈등과 며느리의 탈선으로 손녀들을 맡게 되어 며느리를 원망함
	밤잠을 줄여가며 억척스레 일을 하며 손녀들을 양육함
	어린 손녀들 양육으로 친정어머니 임종을 못보고 장례도 못간 것이 한이 됨
	며느리가 손녀들에게 만나 손녀들이 며느리를 닮을까 불안하고 우울함
사례 8	일하는데 자신이 있어 수급 신청을 안했으나 최근 병이 들어 신청 하려고 함
	아들의 이혼에 외도한 며느리가 진 빛까지 청산하게 되어 우울과 절망에 빠짐
	환갑의 나이에 어린 손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유 속박과 살림살이에 지치고 화가 남
	며느리 가족들이 손자녀들에게 연락하는 것에 못마땅하고 화가 남
	아들이 전 며느리 가족들과의 교류에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남
	건강한 체질과 남편을 여의었을 때 만난 예수님을 믿는 신앙심이 버티게 해줌
주민센터, 복지관의 혜택과 교회의 지원, 임대주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감	
사례 9	장남의 이혼과 가출, 무책임함으로 손자녀들을 떠맡게 됨
	아는 장로의 정보제공으로 수급자가 되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음
	손자녀들을 위해 엄마처럼 애썼으나 엄마의 자리를 채워 줄 수 없음을 깨달음
	무책임한 장남의 빛까지 갹아줌
	손자가 방황해 힘들었으나 손녀는 철이 들어 할머니를 엄마처럼 여기고 배려함
	힘들 때마다 기도했던 신앙심이 가장 큰 힘이 되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됨

사례 10	일하면서 갑자기 어린 손녀를 맡게 되어 당황하고 장남의 무책임에 분노함
	일을 포기하지 않고 손녀를 기관에 맡겨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직장 후배가 손녀를 돌봐주며 손녀가 잘 따라 큰 힘이 됨
	학교 연계로 상담센터를 전전했으나 갈 때마다 상처를 받음
	간수술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자녀들과 이런 현실에 대한 원망이 올라옴
	바쁜 생활로 신앙을 돌보지 못해 큰 힘을 얻지 못함

(2) 연대기적 분석(Chronological Sequences)

사례별 분석 단위 내용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 단위들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확인하는데,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들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김소영, 2016). 이를 위해 조손가족 형성 후 연차 및 조모와 손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주요 사건을 배치하는 표를 작성하고 인과 관계 분석을 다음 3단계로 진행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 환경’을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으로 관계적 요소는 (관), 경제적 환경은 (경), 신체적 환경은 (신)으로 표시하고 각 요소가 시작된 시점에서 표기되도록 배치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결과 또는 대처’이며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앞에서 배열한 스트레스 환경의 결과나 대처를 인과적 관계로 파악하여 심리적 상황은 (심), 사회적지지는 (사)로 표시한 후 화살표(→)로 인과성을 나타냈다. 조손가족 이전부터 있었던 대처 요소는 두 개의 화살표(→→)로 가장 하단의 조손가족 1년차 위치에 표시하였다. 이렇게 각 요소의 시간적 배열 후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은 적응 과정 분석의 핵심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여러 요소 중 적응 과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결정적 요소(Critical Factor)로 보고 네모점(■)으로 표시하였다. 결정적 요소는 면담 자료를 검토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진술할 때 강조하거나 반복해서 말한 내용, 연구자가 현장에서 기록한 현장 노트의 기록 등을 추출하여 판단하였다. 사례별로 결정적 요소의 개수를 정하지 않고 자료에 충실히 근거하여 추출하였다.¹

① 사례 1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조모나이	75	76	77	78	79
손자나이	14	15	16	17	18
손자반향(관)→조모신체상해(신)					

1) 이 표기는 청년노숙 진입과정을 Yin의 방법론으로 연구한 김소영(2016)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손자 경찰신고(관)→혈압, 이석증(신),못키우겠다는 절망(심)
■성당도움요청(사)→손자상담 및 적응(사)→관계회복
손녀특수반(관)→장애인수급(경)
→→ 성경필사(사) → 감사 및 자부심(심)
→→ 친구들 모임 꾸준히 참석(사) → 친구들의 꾸준한 방문(사)

② 사례 2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조모나이	69	70	71	72	73	74	75	76	77
큰손자나이	12	13	14	15	16	17	18	19	20
■좁은집(경)→ 장남의지(관)									
■고된가사(관)→무릎통증(신)→깊은 회한(심)									
깊은 회한(심)→교회출석(관)→■교회의 지원과 위로(심)									
■머느리반항(관)→우울(심)→■큰손자의지(관)									

③ 사례 3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조모나이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큰손자녀나이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장남빛상환(경)→우울(심)																
교회도움(사)→신앙(심)																
공공부조(경)→현실수용(심)																
■장남동거(사)→심리적안정(심)																
→→■건강한 체질(신)→심리적 안정(심)																

④ 사례 4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조모나이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1	72	73	74	75	76	77	78
손녀나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생계고역(경)→암수술(신)																				
■손녀등교거부상담실패(관)→우울(심)																				
■주거불안(경)→불안(심)																				

임대주택(경)→안정(심)
남편사망(관)→우울(심)
■계자녀단절(관)→우울(심)
■친딸이혼(관)→우울(심)

⑤ 사례 5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조모나이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손자나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아들카드빚상환(경)→우울(심)																				
지인도움(관)→수급자지정(경)																				
아들재혼(관)→손자녀밀착(심)																				
■교회지원(경)→신앙(심) ■손자모범(관)→안정(심)																				
→→ ■건강한체질(신)→심리적안정(심)																				

⑥ 사례 6

조손가족연차	1~5	6~10	11~15	16~22
조모나이	54~58	59~63	64~68	69~76
손자녀나이	8~12	13~17	18~22	23~30
손녀반항(관)→우울,분노(심)				
■삼남과 갈등(관)→자살기도(신,심)				
■남편사망,장남병환및사망(관)→우울,불면(심)→손녀와갈등(관)				
수급자혜택,주거불안(경)→폐휴지줍기(경)				

⑦ 사례 7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조모나이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89	
큰손녀나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머느리원망(관)→우울,분노(심)																										
친정엄마 임종 못지킴(심)→우울,분노(심)																										
■머느리가 손녀들에게연락(관)→우울,분노(심)																										
■부정맥,뇌경색(신)→우울,분노(심)																										

⑧ 사례 8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조모나이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큰손녀나이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머느리빛 청산(경)→우울(심) 경제적 어려움(경)→교회의 지원(경), 임대주택(경) ■손자탈선(관)→우울(심) ■아들원망표출(관)→우울(심) ■머느리가족연락(관)→우울(심) →→ ■건강한 체질(신), 신앙심→심리적안정(심)																				

⑨ 사례 9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조모나이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큰손자나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장로의 정보제공(관)→수급자(경) 심장비대증(신)→우울(심)→상담(심) 장남 빛상환(경)→경제적 어려움(경) ■손자탈선(관)→우울(심) 손녀동거, 딸같은손녀(관) →관계유지(관) →→ ■신앙(심)→극복의 힘(심)																					

⑩ 사례 10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모나이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손녀나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양육과 일 양립 어려움(관)→원망, 분노(심) ■직장후배의 도움(관)→안정(심) 간이식수술(신)→회환(심) ■손녀와 갈등(관)→우울(심)												

2. 분석

(1) 스트레스 환경 분석

연대기적 방법으로 도출한 인과 관계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 중 결정적 스트레스 원인을 중심으로 패턴을 찾고 예측하지 않았던 변수를 자료에서 찾아 경쟁설명을 통해 판정한다. 분석 결과 10개의 사례의 핵심 경험에서 드러난 결정적 스트레스 환경은 아래 표와 같이 총 24개이다.

표 5. 스트레스 환경 - 패턴 매칭 분석

	사례	결정적 스트레스 요인	분류	스트레스 원인 관계 대상	심리적 상황	경쟁적 독립변수
1	1	손녀와의 관계	(관)	손자녀	못키우겠다는 절망	조모의 성격
2	1	혈압, 뇌졸중	(신)		우울	조모의 가치관
3	2	좁은 집	(경)		우울	
4	2	고된 가사	(관)	손자녀	깊은 회한	타향살이
5	2	무릎 통증	(신)		우울	
6	2	며느리반항	(관)	며느리	우울	굴곡진 삶
7	3	장남의 빛 상황	(경)		우울	
8	4	손녀등교거부, 상담실패	(관)	손자녀	우울	
9	4	주거불안	(경)		불안	
10	4	계자녀 관계 단절	(관)	성인자녀	우울	조모의 자존감
11	4	친딸이혼	(관)	성인자녀	우울	조모의 가치관
12	5	아들카드빚상황	(경)		우울	
13	6	삼남과 갈등	(관)	성인자녀	자살기도	굴곡진 삶
14	6	남편 사망	(관)	남편	우울, 불면	조모의 가치관
15	6	장남 사망	(관)	성인자녀	우울, 불면	
16	7	며느리원망	(관)	며느리	우울, 분노	조모의 가치관
17	7	며느리가 손녀들에게 연락	(관)	며느리	우울, 분노	
18	7	부정맥	(신)		우울, 분노	
19	8	손자탈선	(관)	손자녀	우울	타향살이
20	8	며느리가족이 손자녀에게 연락	(관)	며느리	우울	
21	8	아들원망표출	(관)	성인자녀	우울	

22	9	손자탈선	(관)	손자녀	우울	
23	10	양육과 일 양립 어려움	(관)	손자녀	원망, 분노	조모의 가치관
24	10	손녀와 갈등	(관)	손자녀	우울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관계적인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신체적, 경제적 요인이 그 뒤를 따른다. 관계적 스트레스의 관계 대상은 손자녀, 성인자녀, 며느리, 남편 순으로 가족과 관련된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이다. 이 중 손자녀의 갈등과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거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있었고 신체적, 경제적 요인은 참여자 진출뿐 아니라 현장기록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각 요인에 대한 대표 진술들이다.

① 손자녀와의 갈등

자기 뜻대로 안되면 나를 꼬집고 때리더라고. 얼마나 놀랐던지. 막 혼을 내줬더니, 글썽 112에 전화를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경찰이 왔어.. 난 손자 오기 전에는 건강했는데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몸이 너무 안 좋아 진거야... 지금까지도 혈압이 높고 안 좋아... (사례 1 연구 참여자)

손자가 고등학교 겨우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내가 쫓아다니면서 겨우 보냈어요. 자느라고 학교를 안가니 깨워서 보내고 깨워서 보내고... 매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담배피우다 몇 번을 걸리고... 그럼 내가 가서 또 손이야 발이야 빌고... 그 놈 때문에 내가 학교를 몇 번을 찾아갔는지...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 내가 엄마 없이 키웠어요.' 하면 선생님도 어떨 때는 퇴학시킬라 하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애쓰고 다니시니 졸업은 시켜주겠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졸업을 겨우 했어요.(사례 8 연구 참여자)

② 성인자녀와의 갈등

성인자녀와의 갈등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다. 조손가족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성인자녀가 주된 갈등 대상이지만 다른 자녀들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도 있었다.

'이놈아 내가 니 새끼 봐주러 온 거를 땅치고 후회한다.' 내가 지금도 이렇게 막 해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내 혼자 막 울어. 속이 상해서. 이놈이 날 이렇게 고생시키나 싶어. 뭐 배운다고 빛내서 키웠더니 지 가정도 하나 못 지키고 이제는 이 놈이 낳은 새끼들 뒤치다꺼리까지... 놀

러도 하나 못 갔어... 내가 후회한다고 욕해. '너 때문에 내가 빨리 죽고 싶다' 하고 소리쳐. 그럼 아들이 미안해하지. (사례 8 연구 참여자)

손녀 키우면서 아들하고도 많이 싸웠어. 애(조카)를 너무 잡는다고 뭐라고 하잖아. 엄마도 없는 애 불쌍히 여겨주지 못한다고 손녀 딸 앞에 두고 나를 나무라는 거야. 그게 더 속상해. 조카를 앞에 두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그게 더 속상해. 시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것들이 또 그래... 내가 아들놈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니 억울하고 분이 나서 너무 힘들었지. (사례 6 연구 참여자)

③ 며느리와 갈등

조모에게 있어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이 된 며느리나 며느리네 가족 생각만 해도 화가 치미는 존재이다. 손자녀를 키우면서 전며느리가 자녀나 손자녀들과 연결되어 영향을 주는 것을 보는 조모는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분노를 느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 며느리를 '그 여자', '계집애'로 표현하며 분노 표현을 숨기지 않았다.

이 엄마라는 것이 애들 주변에서 뱅뱅 돌면서 애들을 불러내.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고 땡기고 그래. 지 친정에 뭘 일이 생기면 애들을 끼고 가요. 내가 복장이 터져요.. 애들이 그 여자 만나고 오면 애들이 하나도 배울 것이 없어... 그 여자에게는 못된 것만 배우지..우리 손녀한테도 내가 뭐라고 그래. 그 여자한테는 좋은 거 못 배운다고... (사례 7 연구 참여자)

④ 경제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

신발장이 없고 얇은 철문 열면 바로 복도. 복도에 걸린 손자들 가방과 운동화. 한 사람이 누우면 다른 가족들이 다닐 수 없는 협소한 집안 구조(현장 기록 F-2-2-7)

면담을 위해 사례 2 연구 참여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다. 성인자녀들과 살지 못한 것은 관계 때문이 아니라 집이 좁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고 손자들이 커가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협소했다.

병원에서 준 봉투. 약과 각종 영수증, 기록 등이 가득. 신경질(직접관찰 O-7-2-1)

사례 7 연구 참여자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방에 들어가 큰 쇼핑백을 가져왔다. 그 안에

있는 각종 병원 기록과 영수증, 약 등을 보여 주면서 매우 신경질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몸이 아프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 데에 스트레스가 심했다.

⑤ 경쟁적 독립변수

자료에서 추출한 경쟁변수는 조모의 성격, 조모의 자존감, 조모의 가치관, 타향살이, 굴곡진 삶 등이다. 분석결과 조모의 성격, 타향살이, 굴곡진 삶은 스트레스가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조모의 가치관과 조모의 자존감은 적응 과정에서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대처 및 사회적지지 분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종속변수 개념으로 분석되며 앞에서 수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패턴 매칭을 활용한다. 독립변수 패턴 매칭과 달리 종속변수 패턴 매칭은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한다(Yin, 2016). 앞에서 도출한 24개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를 패턴 매칭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교회/성당, 성인자녀, 손자녀의 학교 그리고 ‘대처자원 없음’으로 드러났다.

표 6.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 - 패턴 매칭 분석

	사례	결정적 스트레스 요인	대처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상위수준	타당성 위협요소
1	1	손녀와의 관계	성당에 도움 요청	성당	공적지지	조모성격
2	1	혈압, 뇌졸중	신앙의지, 성경필사	성당	공적지지	
3	2	좁은 집	장남의지	성인자녀	사적지지	
4	2	고된 가사	장남의지	성인자녀	사적지지	형제애
5	2	무릎 통증	교회출석	교회	공적지지	
6	2	머느리반항	손자의지	손자녀	사적지지	
7	3	장남빛상환	성인자녀의지	성인자녀	사적지지	형제애
8	4	손녀등교거부, 상담실패	학교/공공기관 상담	학교	공적지지	
9	4	주거불안	공공부조	교회, 공공부조	공적지지	
10	4	계자녀관계단절	친딸과 교류	성인자녀	사적지지	
11	4	친딸이혼	대처자원없음			
12	5	아들카드빛상환	수급자지정, 신앙심	교회, 이웃, 남편, 손자녀	공적지지	

13	6	삼남과 갈등	대처자원없음			
14	6	남편 사망	대처자원없음			
15	6	장남 사망	차남도움	성인자녀	사적지지	
16	7	며느리원망	대처자원없음			
17	7	며느리가 손녀들에게 연락	대처자원없음			
18	7	부정맥	대처자원없음			
19	8	손자탈선	신앙	교회	공적지지	조모성격
20	8	며느리가족이 손자녀에게 연락	신앙	교회	공적지지	
21	8	아들원망표출	신앙	교회	공적지지	조모성격
22	9	손자탈선	신앙	교회	공적지지	
23	10	양육과 일 양립 어려움	직장후배	직장후배	사적지지	조모성격
24	10	손녀와 갈등	상담	학교	공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조모의 대처를 각 대표 자료들과 함께 살펴본다.

① 신앙

신앙 가진 게 참만 다행이여. 내가 지금 교회 안다녔으면 뭐하고 있을까. 경로당가서 술먹고 화투나 칠라나. 권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잘 만나서 너무 잘했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손자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하니까 저런 분이 어딴나. 천만다행이지. 목사님 내외분이 잘 해줘. 교회가면 마음이 편안해. 아이들 덕에 교회 갔는데 기도도 하고 설교를 듣고 하니까 마음이 설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어보자 한거여. 교회 나오기 시작한 뒤로 위로 많이 받았지. 수요일도 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싹 풀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거 같아... (사례 2 연구 참여자)

교회에서 준 반찬 및 빵(직접 관찰 O-2-2-1)

일주일 뒤 사례 2 연구 참여자와의 두 번째 면담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집으로 갈 때는 교회 목사가 노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날이어서 교회의 승합차를 타고 몇 집을 돌아 연구 참여자 집으로 갔다. 목사와 사모가 동행해 도착 몇 분 전 전화하면 노인들이 약속 장소로 나와 반찬이나 빵을 받는 모습

이 매우 익숙해보였다.

손주들을 집 앞에 어린이 집에 맡겼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라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처음에야 모르고 집 앞에 있으니 그냥 보냈지. 그 원장님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우리 애들이 엄마 없는 거 알고 많이 도와줬어요. 돈 내는 것도 많이 봐주고.. 집 앞에 그 교회가 있었던 게 감사하죠..나도 애들 때문에 처음 교회를 간 거야. 믿는 데가 있으니까 마음에 편해요.. 일요일 날이면 애들이 열심히 가요. 나도 ‘니들은 엄마도 없는데 누가 도와주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하고.. 다 그 교회 잘 나왔어요.(사례 3 연구 참여자)

② 성인자녀 및 손자녀

우리 작은 아들이 어린 것들 데려다가 아빠처럼 하면서 고생 많이 했지. 애들이 처음에 엄마 찾고 울었는데 작은 아빠가 정들이느라고 많이 놀아주고 그랬더니 작은 아빠를 아빠라고 불렀어. 진짜 아빠는 큰아빠라고 하고. 애들이 아빠라고 하면 작은 아들도 좋아하더라고. 처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작은 아들 없었으면 못했죠.(사례 3 연구 참여자)

작은 아들하고 벌어서 같이 애들을 키웠지. 늙은 엄마가 애기 키우는걸 보고 어떻게 안도와주나. 같이 했지. 어떻게 보면 삼촌이 애 아범이야. 조카 업고 다니고 안고 끼고 다니고 그러면서 키웠으니까... (사례 7 연구 참여자)

손자녀가 대처가 된 사례가 있었다. 사례 5 연구 참여자는 첫 번째 면담에서 손자 이야기를 하다 연구자가 부탁도 하기 전에 ‘내 보여드릴게’ 하더니 두 번째 면담에서 손자가 받은 상장들을 잊지 않고 가져와 보여주며 자랑하였다.

손자가 받은 상장들 (직접관찰 O-5-2-1)

표창장 3개로 효행상, 모범청소년상, 구청장상이었다. 이러한 상장들이 교사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손자가 학교에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지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조모인 연구 참여자 또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로 작용했다. 또한 시간이 흘러 손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조모의 대처에 큰 힘이 되어 의지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③ 손자녀의 학교

손녀가 학교를 안가니까 학교에서 연결해준 상담선생이 왔는데.. 더 힘들게 했어. 한 달 있다가 선생이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하니까 애가 어떨겠어. 그 다음엔 멘토 선생님이 왔는데 그 선생이 1주일에 한번 오는 것을 핑크를 내. 애는 나가지도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게 얼마나 아이에게 안 좋은지... 좋은 선생님이 있다가도 얼마 있다 그 선생님이 가면서 다른 선생님이 오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중엔 문도 애가 안 열어주더라고. 오히려 마음이 닫히더라고.(사례 4 연구 참여자)

상담을 20년인가 하셨다는데.. 아이를 옆에 놓고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애 머리가 굉장히 나빠서 학습도 못 따라 갈 거라고.. 아이큐가 두 자리고 애가 산만하다고.. 그렇게 애 듣는데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약 먹으라고... 우리 손녀가 나중에 자기가 보기에 그 선생이 더 산만한데 그 사람이 의사가 맞냐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연계해준 곳인데 의사가 인성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있고 돈만 벌려고 해서 너무 실망했어요. (사례 10 연구 참여자)

④ 대처자원이 없음

사례 4의 친딸의 이혼이나 사례 6의 남편 사망, 삼남과의 갈등을 겪은 조모들은 어떠한 대처를 하지 못해 지금까지 우울감과 허망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연구 참여자들은 헛웃음을 짓거나 ‘땀을 디디면 허공을 잡는 것 같이 혼이 나갔다’라는 진술을 했다. 사례 7 연구 참여자가 며느리에게 갖고 있는 원망, 며느리가 손녀들에게 연락하는 일에 대해 아들이 방관하는 것 등은 대처가 없어 지금까지도 스트레스 상황으로 남아있고 몸이 아픈 것 또한 성인자녀들이 있어도 병원비와 병원 왕래를 혼자 해결해가고 있어 마땅한 대처가 없었다.

⑤ 타당성 위협 요소

대처 자원의 분석에서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형제애’와 ‘조모의 성격’이 도출되었다. 자녀나 손자녀의 형제애는 사적지지의 일부로 조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간접적인’ 대처로 기능해 주 대처 자원을 강화하는 요소이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조모의 성격은 관련 진술 분석 결과 그 자체로는 사회적 지지는 아니지만 사회적 지지를 연결하는데 직접적이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사례 1, 사례 8 연구 참여자의 적극적인 성격은 교회나 지역 사회 자원이라는 사회적 지지로 연결되었다.

3. 해석

(1) 적응 유형 분석

10개의 사례로부터 제시된 증거들을 표의 형태로 재배열하여 반복연구논리(replication logic)로 분석하는 사례통합은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는데 유용한 분석 작업이다.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의 핵심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 사회적 지지이며 지금까지 분석 결과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기준으로 사례를 통합하여 도출된 사례별 적응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사례통합으로 도출된 사례별 적응 유형 분류 1

사례	스트레스요인 / 관계대상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상위수준	적응유형
1	손자녀	성당	공적지지	종교 기관과 종교적 지지를 통한 자존감의 회복
	신체적요인	성당	공적지지	
2	경제적 요인	성인자녀	사적지지	성인자녀의 희생 위에 성인자녀와 종교적 지지를 의지해 헤쳐나감
	손자녀	성인자녀	사적지지	
	신체적요인	교회	공적지지	
	며느리	손자녀	사적지지	
3	경제적요인	성인자녀	사적지지	성인자녀의 희생으로 안정감을 찾음
4	손자녀	학교	공적지지	공적지지의 실패 및 손자녀 및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우울을 극복하지 못함
	경제요인	교회, 공공부조	공적지지	
	성인자녀	성인자녀	사적지지	
	성인자녀	-	자원없음	
5	경제적요인	교회	공적지지	종교 기관과 종교적 지지를 통한 일상의 유지
6	성인자녀	대처자원없음		대처자원의 미약한 상황에서 손자녀 및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우울을 극복하지 못함
	남편	대처자원없음		
	성인자녀	성인자녀	사적지지	
7	신체적 요인	대처자원없음		대처자원이 없어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지 못함
	며느리	대처자원없음		
	며느리	대처자원없음		
8	손자녀	교회	공적지지	종교 기관의 물적, 정서적 지지로 극복해나감
	며느리	교회	공적지지	
	성인자녀	교회	공적지지	

9	손자녀	교회	공적지지	신앙을 의지하여 마음과 관계의 평안을 유지함
10	손자녀	직장후배	사적지지	직장 후배의 도움으로 겨우 적응해나갔으나 공적지지의 실패로 손자녀 양육이 감당이 안 됨
	손자녀	학교	공적지지	

사회적 지지를 기준으로 사례를 통합한 후 상위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과 앞에서 주제화 코딩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다음과 같이 4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표 8. 사례통합으로 도출된 사례별 적응 유형 분류 2

적응유형	적응유형 설명	사례
종교지지형	종교 기관의 지지, 신앙심을 통한 자존감 및 일상의 회복	1, 5, 8, 9
성인자녀희생형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이 된 자녀가 아닌) 성인자녀의 희생 위에 종교 등 다른 자원을 의지해 헤쳐나감	2, 3
공적지지실패형	공적지지의 실패를 경험하며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함	4, 10
대처자원미약형	대처 자원이나 자원 활용이 미약한 상황에서 관계의 지속적인 어려움 및 우울을 극복하지 못함	6, 7

① 종교지지형

이 유형의 조모들은 손자녀를 맡게 된 상황에서 신앙이나 종교 기관을 의지하였고 종교를 통한 물질적, 심리적 지지는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결정적 대처가 되었다. 스트레스 요인은 모두 달랐으나 손자녀를 맡기 전부터 독실한 신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어 신이 자기를 돕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 준다는 믿음이 버터내는 힘의 원천이었다. 또한 이들은 종교 기관의 교역자나 동료들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도움을 받는 토대가 되었다. 이들이 받은 도움은 상담 지원, 현금 및 학원비 등 지원, 심방과 예배를 통한 정서적 지원 등으로 매우 실제적이고 다양했다. 이 유형의 조모들은 손자녀를 키운 의미에 가족, 손자녀 수용을 보여주었다.

② 성인자녀의지형

이 유형의 조모들도 신앙은 있었으나 성인자녀가 우선적인 대처가 된 후 신앙을 의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손자녀를 맡으면서 신앙을 갖게 된 조모들이 이 유형에 속하였으나 이것이 이 유형이 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이들은 손자녀를 맡게 된 시점에 미혼인 다른 성인자녀들이 있었고 주거 및 생활비 제공 등 아빠 역할을 하며 희생한 성인자녀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조모들은 손자녀를 맡긴 성인자녀에 대한 아픔과 함께 희생한 성인자녀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더한

고통을 신앙에 의지하며 위로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손자녀를 키우는 삶의 의미는 ‘가족’이었지만 이 ‘가족’은 종교지지형과 달리 그 의미가 성인자녀 중심이었다.

③ 공적지지실패형

이 유형의 조모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연계해준 상담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을 겪었다. 이들은 성인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적지지 실패하면서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되었다. 무엇보다 그 공적지지가 ‘학교’, ‘상담’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손자녀에게 매우 중요하고 영향이 큰 이 두 가지가 오히려 트라우마와 같은 작용을 했다는 것이 그 후로도 조모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일이 되었다. 종교와 관련하여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들은 손녀를 키우기 전부터 신앙이 있었지만 교회 내 관계는 돈독하지 않았다. 자원이 별로 없고 공적지지의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손녀를 키우는 의미는 ‘후회’ 또는 ‘다시 한다면’의 마음이었다.

④ 대처자원미약형

이 유형은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잘 대처하지 못한 부류이다. 이 유형에 속한 조모들에게 대표적인 대처 자원인 종교나 성인자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자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두 연구 참여자 모두 미혼 성인자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이 된 자녀를 두둔하고, 희생하고 있는 자녀에게 희생을 더욱 강요하는 듯한 조모의 태도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거나 신앙은 있어도 성인자녀와의 갈등에 묻혀 대처 자원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적응 단계 분석

64개의 주제문을 스트레스-대처-적응 과정에 대입하여 조손 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만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패턴 코딩을 한 결과 스트레스 주제문은 33개, 대처 주제문은 19개였으며 이들의 상위 개념을 도출한 결과 스트레스는 ‘충격 및 혼란’으로, 대처는 ‘사회적지지’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제문 12개가 있어 중간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9. 중간 단계의 주제문

주제문	범주화	상위개념	유형
성당 신부에게 도움을 청해 손자가 성당에서 상담을 받게 됨	적극적, 자발적인 도움요청	적극적인 도움요청	종교지지
잘 아프지 않은 건강한 체질로 손자를 키우면서 거의 아프지 않음	건강한 몸이 가장 큰 자산	건강한 몸	종교지지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이 가장 귀중한 돌봄 자산			성인자녀
건강한 체질과 남편을 여의었을 때 만난 예수님을 믿는 신앙심이 버티게 해줌	신앙을 의지	신앙을 의지, 종교 기관을 동반자로 여김	종교지지
교회에서 봉사하며 재정적, 정서적지지를 받아 손자와 조부모 모두 심리적으로 안정됨	보답의 마음으로 더욱 섬김		
힘들 때마다 기도했던 신앙심이 가장 큰 힘이 되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됨	기도로 평안 유지		
밤잠을 줄여가며 억척스레 일을 하며 손녀들을 양육함	억척스럽게 일함	자신을 의지, 종교 기관을 신뢰하지 않음	자원미약
일하는데 자신이 있어 수급 신청을 안했으나 최근 병이 들어 신청 하려고 함	자신을 믿음		공적실패
교인이지만 교회 사람들에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로서 삶을 이어감	교회에서 마음을 열지 않음		
가세를 기울게 한 아들로 인해 화나 나나 손자를 아들 같이 여겨 의지할 수 있음	현재 관계를 소중히 여김	손자녀를 우선시 함	종교지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손녀를 기관에 맡겨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손자녀보다 일을 선택함	일을 우선시 함	공적실패
바쁜 생활로 신앙을 돌보지 못해 큰 힘을 얻지 못함	신앙보다 일을 선택함		

이처럼 조모 자신의 자원이거나 선택을 담고 있는 단계는 ‘충격 및 혼란’이나 ‘사회적 지지’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로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의 연결을 보다 구체적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적응 과정은 충격 및 혼란 단계→중간 단계→사회적 지지 단계→적응 단계로 분류되었다.

① 충격 및 혼란 단계

이 단계는 조모가 노년의 시기에 손자녀를 책임지는 피할 수 없는 일을 갑작스레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인 손자녀를 키우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분노와 원망, 우울감을 경험하며 혼란을 겪는 시기이다.

② 중간 단계

이 단계에서 조모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추스르며 선택을 하게 된다. 우선 이 단계에서 조모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원 중 건강과 성격은 적응 방향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 조모의 선택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신앙에 관한 선택으로, 종교 기관을 동반자로 여기고 신앙을 의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와 관련된 선택으로 손자녀를 우선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선택은 다음 단계인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의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③ 사회적 지지 단계

조모의 선택으로 연결된 사회적 지지가 드러나는 단계이다. 조모의 주변에는 대체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존재했으며 분석 단계와 해석 단계 모두에서 신앙/종교 기관, 성인 자녀, 손자녀, 이웃과 학교 등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3) 최종 명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 명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 명제 :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경제적, 신체적 환경보다 관계적 환경이 결정적이며 이는 심리적 상황(우울, 자존감, 가치관)에 서로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커 적응에 영향을 주는데, 공적 지지에서는 종교 및 신앙이, 사적 지지에서는 성인자녀의 지지가 가장 두드러진다.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유형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따라 종교지지형, 성인자녀희생형, 공적지지실패형, 대처자원미약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적응 과정 단계는 충격 및 혼란 단계→중간 단계→사회적 지지 단계→적응이다. 스트레스 환경과 대처 사이 중간 단계는 조모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사회적지지 및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이 존재한다.

IV. 논의

(1) 조손가족 조모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논의

그동안 조손가족의 가장 취약점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여겨져 왔으나 본 연구는 결정적인 스트레스가 가족과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조손가족은 성인자녀의 불행이 그 시작이고 원인이기 때문에 조모들은 조손가족이라는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인자녀들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지속적

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손자녀 양육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아픔을 재경험하는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삶의 의를 찾는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특징이기도 한데(이준상·김향아, 2017), 본 연구의 ‘대처자원 미약형’은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드러났고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손자녀, 며느리와의 관계 악화로 연결되므로 성인자녀는 조모의 심리뿐 아니라 노후 자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임이 확인되었다. 조손가족 조모들의 우울의 원인을 손자녀 양육 또는 생계 문제에서 찾던 예전과 달리 최근 연구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그 해결책으로 용서가 제안되기도 했는데(박안나, 2020) 본 연구의 결과는 조손가족 가족상담에서 조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심리적 역동이 있는지를 면밀히 탐색해 호소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유형에 관한 논의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대처는 종교가 가장 주요한 변수로 드러나 각 적응 유형을 잘 설명하는 기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앙은 크게 ‘신앙심’과 ‘종교 기관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공공기관을 통해 모집한 연구 참여자도 기독교인이 많아 종교가 있는 조모는 위기에 대응하는 ‘대처’로서 신앙을 의지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이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에 신앙심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와 내적 신앙이 조손가족 조부모의 자원이 된다는 질적연구들과 결과가 같은 것이다(송유미·이선자, 2011 ; 양경순, 2013 ; 안유숙, 2016). Pargament(1997)는 대처가 스트레스 상황의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보고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신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간다는 믿음’이라는 영적 자원으로 대처한 사람들이 위기에 더 잘 적응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종교는 지지자인 신을 의지하여 그 변화의 강을 건너가게 하기 때문에 수용과 변화의 힘 두 가지가 모두 있다고 본 것이다(Pargament, 1997).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 또한 조손가족이라는 현실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더라’, ‘하나님께 다 맡겨.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산다.’, ‘신앙이 없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상황에서 신을 의지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수용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고백으로 변화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다. 또한 미혼인 성인자녀가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 결혼할 시기를 모두 놓친 ‘성인자녀희생형’에 속한 두 사례의 조모들은 모두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손자녀들을 키우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자녀의 희생을 보는 조모들의 심리적 상황은 신앙을 갖게 되는데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신앙이 있던 참여자들보

다 이들은 자녀들의 불행에 대한 한(恨)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신과 기도로 연결되게 된 것을 강조했다. 직간접적으로 종교를 대처자원으로 삼은 조모들의 적응 과정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한편, 종교 기관의 지원에 대해서는 교회에 다니는 조손가족 조모들이 교회에서 거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안유숙(201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교 기관은 정서적이지 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역할, 손자녀를 함께 키우는 양육 공동체로서의 역할,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 전도의 역할 등 보다 다양하게 지원했을 뿐 아니라 각 기관의 특성이나 규모에 맞게 - 예를 들면 지역교회는 성도의 사정을 깊이 알고 돌봄과 육아 도움 등을 제공했고, 대형교회는 현금과 학습지원 등 - 지원을 제공해 조손가족 조모에게 실질적인 대처가 되는 주요 사회적 지지였다. 특히 대형교회 성도가 그 교회 신자가 아닌 연구 참여자의 손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수년간 찾아와 학습 도움을 주거나 의류를 사주고 교통카드 충전을 제공하며 손자를 격려해주고 갔다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연구자가 이번 연구 모든 면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처럼 종교 기관으로부터 실제적인 지원을 받은 연구 참여자들은 이로 인하여 신앙심이 더욱 깊어졌고 그것이 이 적응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 나가는 힘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안유숙(2016)의 연구는 저소득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들이 교회에서도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감으로 인한 위축감과 무력감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저소득’이라는 변수보다는 조부모의 성격이나 종교 기관의 분위기와 같은 다른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 연구 참여자 역시 저소득층에 속하였고 목회자에게는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자신의 사정을 아는 교우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다 나은 주거환경의 길이 열렸고 또 같은 교회 내에 같은 처지에 있는 조손가족 조모를 연구자에게 소개해 연구 참여자로 연결해주며 성도들이 서로의 사정을 공유하는 공동체임을 스스로 증명했는데 이는 교회 내 진솔한 교제나 소통 분위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교회의 구제 사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인자녀희생형’도 종교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성인자녀는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이 된 성인자녀가 아닌 다른 성인자녀로 이들은 형이나 동생 가정이 해체되면서 조카들의 아빠 역할을 자의 반 타의반 맡게 되었다. 미혼이었던 이들은 홀어머니와 조카들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 결혼할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되었다. 조모들에게는 이 자녀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었지만 조모에게는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이 된 자녀에 대한 아픔과 희생하게 된 자녀에 대한 아픔까지 더해졌다. 특이한 점은 성인자녀를 의지한 모든 사례의 조모들은 1차적으로는 이들을 의지하면서도 후에 신앙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례의 조

모들은 모두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다가 손자녀들을 키우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자녀가 자신을 희생하며 독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조모들의 심리적 상황에 영향을 주어 대처 자원으로서의 불안 전해 오히려 신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고백을 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냇두리, 특히 자녀들의 불행에 대한 고통을 다 들어주고 받아주는 유일한 존재였으며 그 가운데 신앙심이 커져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종교지지형’이나 ‘성인자녀희생형’은 1차적이든 2차적이든 종교를 그들의 대처자원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적지지실패형’은 학교에서 연계한 상담이 오히려 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닫는 결과를 낳았는데, 조기조결의 요인으로 상담관계와 상담 만족도가 꺾히고 있어 조손가족 상담에서 상담관계는 조모와 손자녀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여 쌓은 신뢰 기반의 관계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김현미·권현용, 2009). 또, 이 유형의 조모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종교 기관에서 보다 인격적이고 사명감 있는 기독교 상담사를 만났었다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전문상담으로의 연계가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던 가톨릭 신자인 연구 참여자의 사례와 비교할 때 그 체계와 준비에 있어 미흡했던 교회나 기독교 상담에 목직한 과제를 남긴다. 가톨릭 신자인 연구 참여자는 성당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신부는 교구 체계를 활용해 즉시 전문 상담사를 파견했다. 연구 참여자는 상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으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부가 권면한 것이기에 수용하였고 연구 참여자와 손자 모두 상담을 받았다. 손자의 경우 1년 이상 상담이 지속되어 손자의 심리적 안정과 종교생활에 영향을 미쳐 이 조손가족이 적응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처자원미약형’이다. 이들이 종교적 자원이나 성인자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처자원미약이란 자원 자체가 미약했다기보다는 자원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힘이 미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유형에 속한 사례의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들과의 관계, 특히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드러났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녀와의 관계는 여성 노인에게 삶의 의미, 원천이 되기에 이 영역의 결핍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가용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로 이어졌다.

(3)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단계에 관한 논의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은 충격 및 혼란 단계→중간 단계→사회적지지 단계→적응으로 나타났으며, 조손가족 조모에게 사회적 지지가 결정적인 ‘대처’가 된다는 점은 그동안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 우선 조모의 건강과 성격은 사회적 지지로의 연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조손가족 조모의 대처 능력을 예측하는 자원이 되므로 조손가족 조모 상담에서 이 두 가지 자원을 확인하고 적응

과정에서 긍정적인 유지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적합한 사회적 지지로의 연결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조모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사회적지지 단계 바로 앞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가 그 역할을 하는데 중간단계에서 조모가 하는 선택은 가장 적응적인 ‘종교지지형’과 나머지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무엇에 대한 ‘선택’인가는 두 가지로, 하나는 신앙을 의지하고 종교 기관을 동반자로 여기는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고 종교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손자녀를 우선시 하는가 일을 우선시 하는가이다. 첫 번째 선택은 종교지지형과 대처자원미약형, 공적지지실패형으로 나뉘는 기준이 되었고, 두 번째 선택은 종교지지형과 공적지지실패형으로 나뉘는 기준이 되었다. 신앙을 의지하고 종교 기관을 동반자로 선택한 경우는 심리적인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 관계적 안정을 얻어 적응 과정에 결정적인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종교라는 자원이 있음에도 자신을 의지하고 종교 기관을 신뢰하지 않은, 즉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미약했던 조모는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손자녀 양육을 우선시 하는 선택은 한 개인에게 발달에 따른 적절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후 삶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병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도 두 사례가 조모의 이 선택이 조모의 미래를 극명하게 갈라놓는 것을 보여주었다. 손자를 위해 일을 그만두고 돌봄에 전념했던 연구 참여자는 손자가 학교에서 교사들의 칭찬을 받는 모범생이 되어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조모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반면, 다른 연구 참여자의 손녀는 조모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며 정신과에 전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조손가족의 적응 과정을 돕는 가족상담에서 손자녀의 발달을 고려한 조모의 주양육자 역할에 대한 교육과 도움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4)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에 대한 실천적 제언

①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의 사례개념화 적용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조손가족 상담에서 사례개념화의 주요 요소, 즉 촉발 및 유발 요인, 부적응적 패턴, 자원 및 강점에 대한 정보에 활용될 수 있다. 조모의 스트레스 환경 요소인 관계적, 경제적, 신체적 환경뿐 아니라 경쟁적 변수로 살펴본 가치관, 자존감 등은 모두 조모의 충격 및 혼란 단계의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여 문제를 다각적으로 탐색하도록 한다. 이 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조모의 핵심 스트레스는 관계적 환경이므로 성인자녀를 위시해 손자녀와 며느리 등 가족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적응/부적응적 패턴이나 유지요인은 조모의 대처인 사회적 지지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크게 공적지지와 사적지지로 나누어 보편적인 관점으로 시작해 종교적 지지, 성인자녀와 같은 관계적 지지뿐 아

니라 대처자원이 미약한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문제와 대처 패턴에 관한 부분이 윤곽이 드러나면 중간 단계에서 확인했던 조모의 자원과 선택을 확인한다. 상담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게 된 과정에서 조모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중요하며 중간 단계는 그것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중간 단계의 조모의 선택은 적응 또는 부적응 패턴에 대해 결정적이므로 상담 목표로 연결하여 상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점이며 조모 상담의 핵심이다.

② 조손가족 상담에서 계열적 개입절차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개인수준→관계수준→전체수준의 계열적 개입절차를 통해 조손가족 가족 상담에 적용할 수 있다(김선남, 2005). 개인수준의 상담은 앞에 논의한 사례개념화를 조모의 상담에 적용한다. 관계수준의 상담은 손자녀의 적응 과정인 갈등→인식→성장 단계를 조모의 적응 과정인 충격 및 혼란→중간→사회적 지지 단계와 통합하여 보는 상담이다. 특히 조모의 충격 및 혼란 단계나 사회적 지지 단계에 모두 손자녀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고, 손자녀의 적응 과정도 모든 단계에서 조부모의 특성과 관계가 변수가 되므로 상담사는 이들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각각 처해있는 단계를 확인하여 이들의 상호 작용을 다루어야 한다. 전체수준에서는 본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조모 및 손자녀와의 관계로 확장해 3세대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조손가족의 당면 문제에 촉발, 유발 요인이 되는지, 부적응적 패턴을 유지하는 요인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문제에 따라 사례개념화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담 흐름에 따라 전체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용서와 회복이라는 궁극적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5) 전문 상담 제공이 가능한 기독교 기관에 대한 함의

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지지로서 기독교 기관이 조손가족을 지원할 때, 이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관계적인 요소인 것이 드러난 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복지에서 상담 영역으로 그 지원이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중 천주교인 1명이 기독교인 8명이 받지 못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전문상담'이었다. 이 전문상담이라는 사회적 지지는 연구 참여자의 스트레스 환경 또는 위기 환경을 극복하는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 중에는 교회나 교역자로부터 전문상담을 지원받은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돌봄과 목회상담을 결합한 형태로 지원을 받았으나 간헐적으로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뿐 전문상담은 아니었다. 오히려 신앙이 있고 소속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에서 연계한 상담 경험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례

가 돌이나 있었다. 이처럼 교회는 전문상담을 제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회 안에 상담소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과 전문상담사역을 목회와 분리·연계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미 기독교 복지재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아동센터, 요양센터 등 직영시설과 위탁 시설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상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사료되며, 정책적으로도 조손가족과 같이 노인이 포함된 위기가족에게 종교 기관이 그들의 손이 가장 먼저 닿는 도움이었다는 점에서 교회 특히, 전문 상담 제공이 가능한 교회와의 협력 또는 교회에 전문 상담이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6) 연구의 한계, 제한점 및 제안

본 연구는 조손가족의 조모의 적응 과정을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적응 유형과 적응 단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조손가족을 위한 상담에서 사례개념화 및 계열적 개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로서 종교적 지지의 중요성이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종교기관의 상담 인력의 배치 및 상담실 설치를 제안하였고 종교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한 정책을 제언하여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제언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모든 조손가족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향후 후속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된 조손가족의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개념화를 적용한 상담 사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조손가족의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경미 (2013). 조손가족의 위기문제와 기독교상담. **성경과 신학**, 65, 75-101.
- 강미희 (2011). 사회복지서비스 컨설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경영컨설팅연구**, 11(2), 69-94.
- 김명희·김신희 (2015). 조손가족 조모의 자아분화 상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9(3), 233-246.
- 김미영·윤혜미 (2015).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와 손자녀의 가족관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0, 145-177.
- 김미혜·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한국노년학**, 24(3) 153-170
- 김선남 (2005). 가족기능화 상담 모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6(3), 989-1010.
- 김소영 (2016). **청년노숙 경로에 관한 연구: 노숙진입과 노숙생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송이·김동일 (2020). 조손가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또래애착 사례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10(3), 79-89.
- 김은정 (2024). 조손가정 조부모 전담양육 경험의 특징에 대한 질적 연구. **학부모연구**, 11(1), 81-106.
- 김은정·하문선 (2023). 조손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학습관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부모연구**, 10(1), 107-127.
- 김승희 (2016).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문제 해결방안. **육아정책연구**, 10(1), 1-30.
- 김영한 (2006).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성 - 개혁주의 관점에서 -. **기독교철학**, 3, 9-49.
- 김예성·인훈·박채희 (2014). 조손가족 노인들의 운동참여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2(3), 249-261.
- 김원경·전제아 (2010).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53-671.
- 김정희 역 (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서울:大光文化社.
- 김준 (2015). 기독교상담과 정신의학: 약물치료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제안. **복음과 상담**, 23(1). 47-72.
- 김준 (2021). **성경적 상담과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
- 김현미·권현용 (2009). 청소년 내담자의 조기종결 관련 변인, **미래청소년학회지**, 6(2) 63-84.
- 김혜진·김효정 (2018). 조손가족 아동의 미술수업에 관한 질적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3(3), 49-80.
- 민기채 (2010). 조손가족 조부모의 소득구성원과 총소득 결정요인. **韓國老年學**, 30(2), 323-341.

- 민기채 (2011). 조손가구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韓國老年學**, 31(2), 321-341.
- 박선희·조계표 (2019). 조손가족 실태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土地公法研究**, 85, 413-429.
- 박수선 (2013). 조손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과정 기초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41-57
- 박안나 (2020).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 감소를 위한 기독교 상담의 고찰 : Hargrave의 가족 용서 모델을 적용한 성인 자녀 용서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8(1), 119-145.
- 박안나 (2021). 조손가족 연구의 최근 동향과 향후 기독교 상담의 방향 고찰 : 룯기의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9(1), 143-172.
- 박안나·김준 (2022).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 기초한 상담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7(1), 143-164.
- 박윤미·전수경 (2014). 조손가정 가족원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1(5), 1021-1040.
- 박지연·이숙향·김남희 역 (2013). **질적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Yin, R. K. (2010).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서울: 학지사.
- 서홍란·김양호 (2010).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강점기반 집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노인복지연구**, 47, 161-186.
- 송유미·이선자 (2011). 조손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적응유연성의 관계 -자아존중감, 공감, 내,외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29-353.
- 신경식·서아영·송민채 역 (2016). **사례연구방법**. Yin, R. K. (201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서울: 한경사.
- 신명주 (2019).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양육경험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655-662.
- 안경승 (2023). 기독교상담에서 신학복원을 위한 제언. **복음과 상담**, 31(3). 131-155.
- 안유숙 (2016).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목회적 돌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2), 137-170.
- 양경순·한재희 (2013).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경험. **상담학연구**, 14(2), 911-930.
- 윤주영·고보선 (2017). 조손가족 손자녀의 성장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6, 69-104.
- 윤혜미·장혜진 (2012). 조손가족의 삶 : 쟁점과 지원방안. **아동과 권리**, 16(2), 259-288.
- 이관직 (2007). **개혁주의 목회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대서.
- 이명용·김승희 (2014). 조손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방안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19(3), 549-572.

- 이선화·최해경 (2012). 조손가족 청소년의 성인역할 부담정도와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 23(3), 81-103.
- 이옥주·유금란 (2019). 조손가족 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2), 303-332.
- 이영애·방은령 (2018).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조부모의 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내용 비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491-518.
- 이윤정 (2014). 조손가족 내 조부모의 여가활동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韓國老年學**, 34(2), 299-313.
- 이정빈 (2018). **질적 연구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정화·최원규 (2012). 사회적 지지가 농촌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4), 419-439.
- 이준상·김향아 (2017). 노인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2(2), 27-36.
- 이지영·이혜원 (2011). 조손가족의 가족기능과 의사소통이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32, 205-233.
- 이지연·그레이스 정 (2019).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 유형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2), 85-114.
- 이현주 (2012). **미혼모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검증 및 아기 장래 결정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연구**. 박사 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장영은 (2016). 조부모의 우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7(4), 1161-1181.
- 장영은 (2017).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유연성 연구 - 지역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인문사회** 21, 8(6), 1193-1208.
- 장동진·김용태 (2013). 기독교상담에 대한 기독교 상담자들의 인식유형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249-277.
- 정순돌·정세미·송보가·박화옥 (2023). 세대를 건너뛴 양육에서 조손가족의 삶의 경험 -세대차이와 어려움-. **한국가족복지학**, 70(3), 5-38.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허미화 역 (1997). **질적사례연구법**. Merriam, S. (1994).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서울: 양서원.
- 황미진·정혜정 (2014).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1-22.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annison, L. L. & Smith A. B. (2003). Custodial grandparents community support program: Lessons learned. *Children & Schools*, 25(2), 87-95.

- Dolbin-MacNab, M. L., Smith, G. C. & Hayslip, B. (2021). Reunification in Custodial Grandfamilies: *An Examination of Resilient Family Processes Family Relations*, 70(1), 225-245.
- Edwards, O. W. & Ray, S. L. (2010). Value of Family and Group Counseling Models Where Grandparents Function as Parents to their Grand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32(3), 178-190.
- Sands, R. G., Goldberg-Glen, R. S.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Family Relations*, 49(1), 97-105.
- Tompkins, C. J. (2007). Who Will Care for the Grandparents?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 Mental Health Services*, 45(5), 19-22.
- Pargament, K. I.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practice*. NY: Guilford Press.
- 경향신문 2019. 5. 4일자. “조손가족 “어떻게 지원 받는지 몰라요”... 찾아가는 돌봄 절실” <http://news.khan.co.kr> (검색일 2019.12.18.)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 분석 - 기독교 상담 관점의 질적 사례연구

Analysis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Grandmother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 A Qualitative Cas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박안나 (헤세드상담센터)
김준 (충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조모의 적응 과정을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에 적용하여 10개의 사례를 Yin의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사례에 대한 설명하기와 연대기적 분석으로 분석 단위 간 인과관계를 밝힌 후 스트레스와 대처를 각각 패턴매칭으로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환경은 관계적 요인이, 대처로서 사회적 지지는 종교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사례통합분석으로 적응 유형을 종교지지형, 성인자녀희생형, 공적지지실패형, 대처자원미약형 4개로 도출하였다. 또한 패턴코딩 분석으로 조모의 적응 과정을 충격 및 혼란 단계→중간 단계→사회적 지지 단계→적응으로 도출해 사회적 지지와 적응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의 존재를 밝혔다. 본 연구는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과 단계의 발생 기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상담의 사례개념화와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으며 종교기관과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조손가족, 적응, 사회적 지지, 기독교 상담, Yin의 사례연구